

# ‘무사안일’ 무안군

## 정부 조기집행사업 33%로 끌찌 ... 지역 주요사업 줄줄이 ‘스톱’

무안군이 정부 재정균형집행(조기 집행)사업에서 끌찌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동안 지역주요사업들이 정체·정지되고 있다.

5일 무안군에 따르면 현재 재정조기집행비율은 37.8%에 불과, 전남 평균인 62%, 전국 평균인 66.2%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끌찌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재정조기집행률이 가능한 지자체는 고흥군으로, 80.1%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서민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을 권유하고 있으나 무안군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셈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예산 집중배정할 속셈”

주민들 의혹의 눈초리

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 발 늦은 예산 집행’으로 인해 기업도시 실패 후 새로운 동력으로 삼은 관광분야와 축산분야 사업들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 31일까지 무안군 조기집행 결과 군의 22개 실·과소 가운데 관광문화과의 집행률이 13.1%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축산과 역시 18.6%에 그쳤다.

문화관광과는 영산강 뱃길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인데다 초의선사차 체험관 건립이 막바지에 있어 하반기에 연 축제에 4억원, 차 체험관에 20억원, 뱃길사업에 21억여원 등 4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축산과 역시 민간 자원 보조사업이 많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자나 주민들은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주요사업이 하반기에 몰릴 경우 국·도·군비 비율조정과정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빈발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주민 정모(55)씨는 “현재 무안군이 조기집행이 미미해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해 작년대비 40% 매출도 올리지 못해 원성을 받고 있다”며 “군의 주요사업이 정체되지 않도록 이 시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1석 3조’ 우렁이 농법

해남지역 한 농민이 5일 오전 새끼우렁이를 논에 투입하고 있다. 새끼우렁이 투입 농가는 해남에서만 모두 480여 농가로, 군은 친환경 논에 새끼우렁이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우렁이 농법’이 제초 효과는 물론 노동력 절감, 일반제초제 대비 비용 절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무한도전’ 담양군

## 유기농 생태도시 거듭나기 ...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대책반 운영

담양군이 유기농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올해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군은 책정한 올해 친환경 인증목표는 유기 인증 1483ha 등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 5000ha로, 이는 군 전체 경지면적의 50%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딸기와 토마토, 블루베리 등 담양의

“군 전체 경작지 절반

무농약인증 획득 목표”

품목 발굴에도 앞장

대표 효자작목에서 목표의 28%선인 1537ha에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았다.

군은 논에서 1700여ha의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밭, 꾸지뽕, 산양삼, 버섯류, 산채류, 하계작물 등 인증 가능 품목을 꾸준히 발굴할 방침이다.

친환경축산물의 경우도 올해 목표를 556개 농가로 정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최희우 부군수 주재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추진대책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친환경 농업 추진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읍면장 보고회를 갖기도 했다. 군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0억여원을 투입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실현 농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비의 30~50%를 지원,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특히 영농기목일지와 인증품 생산 계획서 등 인증신청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가를 직접 찾아가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고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도 나서 농민들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 “모내기 걱정 없어요” 신안군 건답직파 재배 성공

한해상습지역 매화도·안좌도 등 일손 줄고 수확 비손...재배 확대

신안군이 지난해 관내 한해상습지에 보급한 건답직파 재배기술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5일 “지난해 가뭄으로 모내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상습지인 매화도와 안좌도 등에 기술을 전수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밭아울이 높고 정상생육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벼 건답직파란 마른 논에 싹을 틔우지 않는 법씨를 10a당 4~6kg씩 기계파종 후 씩이 트면 비 본잎 3매시부터 이앙재배와 같이 물을 넣어 관리하는 기술이다. 신안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입모 수도 3.3m<sup>2</sup>당 330개로 (적정 270~450개) 좋아 앞으로 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관리만 잘 하면 모내기한 논과 똑같이 어려움 없이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또 건답직파를 하면 번거로운 못자리를 하지 않고 법씨를 바로 뿌리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비가 적은 4월에 파종해 비가 내리는 6월부터 물을 넣어 관리하면 되는 편리한 재배기술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을배 소장은 “물 관리, 적기 병해충 및 잡초방제를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해 상습지를 중심으로 건답직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소외계층 무료 점심

목포에 ‘사랑의 밥차’

목포시는 5일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 차량 인계·인수식을 갖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첫 배식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밥차는 IBK 기업은행에서 전국 10개의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으며, 이번 인계·인수식은 전국 4번째다. 사랑의 밥차는 서남권산물유통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주1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 ‘검색선’ 파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5일 “다음 달 5일부터 약 2개월간 원양 어선들이 대거 조업하고 있는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이하 WCPFC) 관할 공해상에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검색 선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검색 선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1호(500t급)로, 지난달 WCPFC 심사를 거쳐 145번째 검색선으로 등록했다. 무궁화 31호는 WCPFC 관할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다문화가정 아동들 조기언어 습득 도움

신안군, 교육용 로봇 지원

신안군이 KT목포지사와 함께 관내 다문화가정에게 유아 및 아동들의 조기언어 습득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 로봇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안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237세대가 다문화가정으로, 아동 수는 329명이다.

군과 KT 목포지사가 공급하는 교육용 로봇은 ‘키봇2’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과 놀이기능을 제공하며 1만여편의 교육 콘텐츠 외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엄마의 서툰 한국어 수준으로 인해 언어발달이 다소 느린 다문화가족 자녀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 습득에 도움을 주는 멀티학습기”라고 설명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3人3色 색깔이 살아있는

# 광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매주 월~금 밤 9시 4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